

교회 내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 교사들의 인식

The Actual Operating Situation of the Disability Department and the Perception of the Homeroom Teachers on Inclusive Education in the Church

김기흥 (Ki-Heung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situation of the department for disabled persons and the recognition on inclusive education of homeroom teachers in the church.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 teachers in 6 churches which are located in B city and K Province and the department for disabled persons is being operated and they were interviewed personally. The contents of the study were divided into two parts: the actual situation of the department for disabled persons and the recognition of homeroom teachers in charge of inclusive education. The major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recognition of the actual situation of the department for disabled persons in the church, the teachers in charge put a core value in the faith life of the disabled people as the meaning of the department for disabled persons. Second, there were many practical difficulties due to the negative emotions of the disabled. Third, the weekly program of the department for disabled persons ha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depending on churches and homeroom teachers in charge. Fourth,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homeroom teachers in charge through systematic teacher education (training) was urgent, but it was difficult in reality due to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teacher in charge. Subsequently, in the recognition of the inclusive education among the homeroom teachers in charge, first, the level of basic understanding about inclusive education was simple or unclear. Second, concerns about the realistic side effects in education site were more emphasized than expectations for positive effects of inclusive education. Third, as the key

* 부산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koelnkim@bnue.ac.kr

2017년 07월 13일 접수, 09월 30일 최종수정, 12월 11일 게재확정

priorities to successfully realize inclusive education emphasized, first of all, the change of the awareness of the disabled people of the church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 behavior of disabled people was emphasized.

Key Words : inclusive education, church school, department for disabled people, homeroom teacher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부산교육대학교 교내 연구과제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전략)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경으로부터의 이탈’이었습니다. 성경해석의 오류, 남용, 지도자들의 부패, 물질탐욕 그리고 인간의 선행과 공로주의... (중략) ... 즉 믿음과 행함의 조화가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믿음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을 받는 것에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정 나아가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이하 생략)(교회복음신문, 2017년 1월 21일).

장애인 교육의 역사에서 원시와 고대 시대의 장애인들은 당시 사회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채 멸절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특히 고대 그리스나 로마시대에 장애아나 허약아들은 리쿠르구스(Lycurgus)법전, 솔론(Solon)법 혹은 12 동판법(Law of the Twelve Tables) 등의 사회법에 의거하여 이른바 ‘합법적’으로 유기되거나 죽임을 당하였다(Greving & Ondracek, 2005).

이 같은 장애인에 대한 무시, 학대, 유기 및 살해 등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는 기독교의 도래와 함께 시작된 중세 시대에서는 이웃사랑 등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자선과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로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기독교 사상의 도래는 오늘날 특수교육이나 장애인복지의 발달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념으로 작용하였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위를 개선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시대에는 질병이나 장애를 하나님의 벌이나 악으로 간주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사상도 여전히 보이기도 하였다(Mosen et al., 2001).

중세 이후 15세기경 르네상스(Renaissance)를 기점으로 근대 시대에 이르러 장애인들은 주로 의사, 교육자 및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치료와 교육의 대상으로 여긴 바 사회적 인식에서 한층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여기에는 중세의 종교적인 편견, 미신이나 봉건제도적 질서에서 탈피하여 인간성 회복을 갈구하는 문예부흥운동을 비롯하여 종교개혁의 영향, 생리학이나 해부학의 발전 및 계몽주의 사상 등이 큰 영향을 끼쳤다. 물론 근대 시대에서도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소거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특히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곳곳에 장애영역별 특수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여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수법을 통하여 특수학교제도의 발전에 주요한 기초가 되었다(Moser, 1995; Hensle & Vernooij, 2000).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북유럽에서 시작된 정상화원리(Principle of Normalization)를 발단으로 하여 오랫동안 장애인 시설의 열악성과 장애인의 사회적 격리와 분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는 계속하여 학교교육에까지 확장되어 특수학교에서 전통적으로 행했던 장애학생에 대한 분리교육이 일반학교에서 비장애 또래들과 함께 교육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으로 작용하여 오늘날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2006년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보장을 골자로 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결의되어 국제적으로도 통합교육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김기홍, 2014; Speck, 2003).

최근 우리나라도 통합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사회적 요구나 교육 정책적인 측면에서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6호에 의하면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2016)의 통계에 따르면 유·초·중·고에 총 87,950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분리교육 환경에 25,961명(약 29.6%), 특수학급이나 혹은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61,989명이 다니고 있어 약 70.4%의 통합교육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교육의 역사적 흐름은 멸절의 시대를 비롯하여 자선과 보호의 시대와 특수학교에서의 분리교육의 시대를 거쳐 오늘날 통합교육의 시대를 맞이하는 등 장애

인과 특수교육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거듭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 개선 과정에 있어서 특히 기독교 사상과 교회는 세간과는 다른 태도와 인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교육과 복지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관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보인다. 우선 오세철(1987)에 의하면 구약에서의 장애인관은 차별, 죄의 결과, 무능력자 등 부정적인 면과 동시에 평등, 영광의 증표, 소망의 대상 등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그 반면에 신약 성경의 경우에 장애(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격적 대우 및 치료의 대상, 장애발생의 인과응보적 사상의 개선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 태도가 훨씬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관련 기사는 구약에서 89회이며(시각장애 47회, 지체장애 27회, 청각장애 15회), 신약에서는 총 71회(시각장애 33회, 지체장애 29회, 청각장애 9회)로 언급되어 구약성경에서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더 많으며, 특히 시각장애에 대해서 월등히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이계윤(2002)도 성경에서 장애(인)는 불평등의 조건, 죄에 대한 벌, 죄인이나 청결하지 못한 존재 등 부정적인 대상으로 이해하였다. 그 반면에 장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 선교의 대상,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나 천국의 동등한 구성원 등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였다. 특히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일부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이은미(2013), 박혜전·조영길(2009), 황홍렬(2008)은 근본적으로 신학적 혹은 성경적인 올바른 접근과 해석을 통하여 근본적이고도 긍정적인 장애인관을 정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성경에서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들이 다소 보이지만, 이는 상징적 혹은 예표적인 의미이지 결코 장애인을 연약함만으로 인격을 폄하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는 삼가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일반 사회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그들의 교육과 복지의 실천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최근 특수교육은 오랜 분리교육의 전통에서 벗어나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함께 수업과 교육에 참여하는 통합교육이 대두되어 새로운 변화가 거듭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통합교육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여 오늘날 기독교회가 과거와 같

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교회교육이나 복지현장에서도 실천을 통하여 사회의 시대정신을 이끌어갈 견인차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통계청(2016)의 종교별 현황에 따르면 개신교 인구가 9,676천명(약 20%)으로 가장 많고, 불교 7,619천명(약 15.5%), 천주교 3,890천명(약 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 언론회는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였다.

... (전락)기독교는 우리 사회에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책임감이 더 늘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더 감당하되,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약자와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하 생략)(크리스찬연합신문, 2016년 12월 25일).

이와 같이 기독교회의 믿음과 행함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여전히 크고 무겁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비롯하여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교회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는 본질적인 기독교적 교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왜곡된 시대정신(時代精神, Zeitgeist)을 올바르게 이끌만한 모범적인 영향력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박혜전·조영길(2009)과 한남희(2001)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교회 내에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밖에도 이희철(2009)에 의하면 장애인교회나 또는 교회 내에 장애인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교회는 약 350여개 가량으로 이 수치는 우리나라 약 5만여 개의 교회 중에 약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근본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나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김문수, 2009; 이은미, 2013). 더군다나 김종복(2005)이나 황홍렬(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일선 목회자들조차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은미(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회의 장애인 선교나 복지는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선교나 예배를 드리는 장애인 교회를 설립한 경우와 교회 내에 장애인 부서를 따로 두어 예배와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장애인 교회는 주로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정서적 또는 영적인 측면에서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이나 환경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교회 내에 학령기나 성인 연령에 해당하는 장애인 부서를 별도로 조직하여 예배를 드리는 형태는 주로 대도시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교회의 분리적인 장애인 선교, 교육과 복지 형태는 결국 장애인에 대한 차별, 편견 등 부정적인 인식이 오늘날도 여전히 기독교내에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김요섭(2007)의 교회학교 장애인부서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통합교육보다는 오히려 분리교육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회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절반정도(약 49%)는 예배는 통합하고 성경공부는 분리하는 것, 약 19%는 예배와 성경공부를 모두 분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응답자의 약 17%는 예배와 성경공부 시간 등 모든 활동을 통합해야 한는데 동의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교육이나 장애인 복지의 역사에서 기독교 사상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획기적인 개선과 더불어 기독교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및 복지 현장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다. 오늘날 특수교육은 다양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 가운데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분리교육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과 수업에 참여하는 통합교육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관, 태도와 삶에서 엄연히 구별되고 다름을 보여야 할 기독교나 교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왜곡되고 부정적인 성경의 해석이나 인식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오늘날까지도 장애인 교회나 혹은 교회 내에서 장애인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여 비장애인들과는 분리된 예배,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통합교육의 당위성이나 효과는 법적, 교육적, 경제학적 또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음이 사실이다. 또한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모든 사람은 죄인(롬 3:10)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딤후 2:11, 딤후전 2:4)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에 대하여 차별이나 편견보다는 서로 돕고(약 2:1-9) 함께할 것(시 133:1)을 교훈하고 있다. 특히 교회 현장에서 장애인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식 수준과 자질은 일반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교육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또한 앞으로 교육의 질적인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장애인부서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회 현장에서 장애인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와

함께 장애인들의 예배, 공과공부 및 교회 행사 등 교회생활 전반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의미를 재점검하는 작은 계기를 마련하여 기독교 사상과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시대정신을 주도하는 전인차 역할을 회복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현재 교회 안의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영역에서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교회 내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에 대한 담당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회 내 장애인들의 예배, 분반공부 및 교회행사 등 교회활동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와 K도에 소재한 6개 교회의 장애인부서 담당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또 의미 있는 연구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목적과 방법 등에 동의한 담당교사들을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면담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몇 가지 특성에서 성별 비율은 각각 50%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은 20대에서 5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40대가 50%(5명)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인 부서의 담당교사의 봉사경력은 평균 약 5년이며, 직업군은 특수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비롯하여 운송업, 의사 및 전업주부 등 매우 다양하였다.

아울러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각 교회의 규모(총교인 수)는 약 2,000명에서 약 50,000명이며, 각 교회의 장애인 수는 전체 교인의 약 1% 내외를 차지하였다. 장애유형으로는 주로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비율이 가장 높고, 대부분 장애학생과 장애 성인이

혼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어린이날, 장애인의 날, 부활절 등 특별한 절기 외에는 대부분 비장애인 교인과는 분리된 교회 생활(예배, 공과 공부, 각종 행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Survey Respondents(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적사항)

Respondents					Church of Respondents			
	Gender (M/F)	Age	Years of teaching	Vocation	Member of Church	Person with disabilities	Type of disability	Type of Inclusion
Teacher 1	F	58	2	Insurance business	ca. 5,000	30-40 (Student+ Adult)	autism, Intellectual or Physical Disability	intermittent Inclusion (Children's Day or Disability Day)
Teacher 2	F	44	8	Private school lecturer				
Teacher 3	M	41	9	Trans- portation	ca. 10,000	15(Adult)	Intellectual or Physical Disability	separation
Teacher 4	F	22	2	College student				
Teacher 5	M	44	3	Social Worker	ca. 3,000	15(Student+ Adult)	autism, Intellectual Disability	separation
Teacher 6	M	58	10	Interior	ca. 2,000	20-25 (Student+ Adult)	autism, Intellectual Disability	intermittent Inclusion (Children's Day or Disability Day)
Teacher 7	M	47	5	Doctor				
Teacher 8	F	54	6	Baby Sitter	ca. 3,000	23(Student+ Adult)	autism, Intellectual or Physical Disability	intermittent Inclusion (Children's Day or Disability Day)
Teacher 9	F	43	3	Housewife				
Teacher 10	M	53	3	Sports Management	ca. 50,000	500(Student+ Adult)	autism, Intellectual, Physical, visual or hearing Disability	intermittent Inclusion (Children's Day or Disability Day)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B광역시와 K도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 및 통합교육과 관련된 담당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먼저 심층면담을 위한 면담 문항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권요한 외(2015), 김기홍(2014) 및 한

국통합교육학회(2009) 등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참고하였다.

아울러 김은경(2007), 김요섭(2007), 이은미(2013)와 박혜전 외(2011) 등의 선행연구에서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통합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개별면담을 위한 질문지가 작성되었다. 또 면담형식은 연구대상의 개인적인 의견과 입장 등 정보를 보다 심층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수집하고자 반 구조화된 면담이 실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알맞은 면담 문항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에 전문성 있는 교수 2인과의 협의 및 검토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1차 질문지를 가지고 본 연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교회의 장애인부서 담당교사 3인과의 예비면담을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등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 및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교회의 장애인부서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개별면담의 반 구조화된 질문은 Table 2와 같다. 개인 면담에서 질문 내용은 우선 교회의 장애인부서 운영에 대한 실태와 장애인들의 교회 내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교사의 인식 등 두 영역으로 구분·설정되었다.

Table 2 Example Questions for Semi-structured Interview(표 2 반 구조화된 면담 질문 사례)

Respondents	Sub-Categories	Example Questions
Teacher Department's for the Disabled Person in Church	Attitude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Department for the Disabled Pers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are the main functions or purposes of the disabled person department? •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s in the disabled person department? • How does the weekly program of the disabled person department proceed? • What are the difficulties faced by teachers in the disabled person department?
	Attitude on the Inclusive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is the meaning of inclusive education? • What effect does inclusive education have on disabled and non-disabled person? • What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o realize inclusive education in church?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이며, 교회 내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이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B광역시 및 K도에 소재하고 있는 교회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이은미(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장애인부서는 현실적으로 소규모 교회보다는 대부분 교회 규모가 크거나 혹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교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부서는 기독교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 및 복지에 대한 일반사회의 인식과 실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선 눈덩이 표집 방법을 통하여 교회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역자를 통하여 연구목적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장애인 담당교사들의 추천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취지,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재차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후에 면담 승낙을 받았다. 또한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가능한 한 편안하게 느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면담내용에 대한 익명성과 얻어진 자료의 합목적적인 사용에 대한 원칙을 알려 자신의 입장 및 생각을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에 문맥적 혹은 내용상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교사들과 이메일이나 전화로 수정과 보완 등이 이루어졌다.

또 본 연구에서 실시된 심층면담은 대화내용의 누락을 방지를 위하여 피담자들의 동의하에 녹음 처리하였고, 개인면담 후에 곧바로 면담내용의 전사 작업이 실시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실시된 10명의 피담자들과의 개별면담 소요시간은 총 493분으로 연구 대상자 당 평균 약 50분이며, A4용지 50쪽 분량이었다(한글 2010, 글자크기 10, 줄 간격 160, 자간 0). 심층면담에서 얻은 자료들은 연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에 의거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질적 분석의 일반적인 절차인 전사-주제별 약호화(coding)-주제 및 의미의 생성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먼저 녹음으로 수집된 자료를 있는 그대로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전사(transcription) 작업이 이루어졌으

며, 또한 전사 후에 녹음파일과 대조하여 수정 및 보완 등 재검토 과정을 통하여 전사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어서 전사과정을 마친 후에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텍스트의 특정부분이 어떤 특정한 주제를 언급한다고 볼 때 가장 잘 설명해주는 주제로서 이름을 부여하는 주제별 약호화 단계를 거친다. 즉 약호화는 특정 텍스트의 내용이 가지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주는 주제적 용어를 말한다. 끝으로 연구자는 도출된 다양한 약호화의 면밀한 읽기, 분석 및 추론 작업 등을 통하여 자료 내용의 전체를 설명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이나 범주를 생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이용숙·김영천, 2005; 김윤옥 외, 2009).

본 연구의 질적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자료 분석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담자들과의 심층면담 시에 녹음 외에 현장노트를 자세히 기록하여 추후 질적 분석을 위한 보충과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이어서 연구자의 주관성의 최소화를 위하여 질적 분석 작업 후에 연구대상자들과 연구자의 직접적인 모임과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오류나 혹은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한 확인 과정인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특수교육 전공자 1명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비롯하여 자료수집, 분석 및 연구결과의 해석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동료검토 과정(peer review)을 거쳤다. 그리고 연구결과에서 연구대상자와의 심층면담내용이 인용될 경우에는 일련번호와 전사본의 쪽수와 줄을 밝혔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교회의 장애인부서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질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두 가지 주제영역에서 주요개념과 단어 및 7가지 하위주제들이 각각 도출되었다.

1.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인식

먼저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인식과 관련한 심층면담 결과에서 네 가지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1) 장애인 부서의 의미는 장애인들의 믿음(신앙)생활 지도가 핵심: 구원, 말씀, 예배

교회의 장애인 부서의 주된 의미 및 기능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담당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장애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이며 동시에 핵심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음전파죠. 전도... 이것이 가장 핵심이죠(교사 3, p.8; 3).

그것은 딱 한가지죠. 장소가 교회잖아요? 특수학교도 아니고 무슨 기관도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 영혼 구원... 그것 하나 목적으로 애들한테 부서가 있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찬양, 기도, 구원의 확신, 말씀... 이것이 목적이 하나죠. 구원이 가장 큰 교회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죠(교사 7, p.27:31-34).

일단 우리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고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불편하고 그런 아이들을 일단 복음을 전하는데 최고의 우선이 있다고 봅니다(교사10, p.44:37-38).

Table 3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results(표 3 개별 심층 면담 결과)

Subject Key Concepts/Words area		6 Subtopics
Attitude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Department for the Disabled Person	salvation, words and worship	The disabled person department is the main purpose of helping person with disabilities live their faith.
	volunteering, advice and avoid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he teacher of the disabled person department.
	teacher-student ratio, lesson activities, internal problems	The types and effects of weekly programs of the disabled person department vary from teacher to teacher.
	problem behavior, intermittent teacher education, teacher situation	Teachers agree that professionalism is necessary through various training programs, but it is difficult in reality.
Attitude on the Inclusive Education (Worship Activities Events)	same place, ignorance	The basic understanding of teachers' inclusive education is simple or unclear.
	Imitation learning, ignoring, unexpected behavior	Teachers are more concerned about side effects than positive expectations and effects of inclusive education.
	understanding, homeroom pastor, problem behavior	In order for the integrated education to be successful in the church, the awareness of the church and the problem behavior of the disabled should be improved.

(2) 장애인 부서의 담당교사 수급에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자원, 권유, 기피

교회의 장애인 부서는 그 특성상 대다수의 경우에 교사와 장애인과의 비율이 일대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거의 모든 교회는 일반 주일학교 교사의 경우보다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먼저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는 교회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광고를 통하여 자원하거나 혹은 장애인 부서의 기존 담당교사가 지인에게 권고를 통하여 참여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주로 자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일 년에 한번 씩 사랑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애들을 애들의 모습을 보고 '사랑부를 섬기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원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교사 1, p.2:5-7).

보통 한 해를 마쳤을 때에 광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유를 하든지... 권면을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죠(교사 6, p.22:26-27).

교사모집은 아름답게 봉사하는 분들이, 아 저분이 좀 적합하시겠다고 하면은 권면을 하죠. 해보시지 않겠느냐고, 인맥으로 좀 끌어오는 측면이 많죠(교사 9, p.38:16-17).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로서의 봉사활동이 주로 자발적이거나 권고에 의하여 행해지기는 하지만 교회마다 교사수급이 기본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특히 장애인 부서에 대한 교인들의 부담감이나 불편함 등 부정적인 인식에 기인하여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선생님 수급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맞추어 주시고 그렇게 나갑니다(교사 6, p.22:28-29).

그런데 부서마다 교사가 다 부족합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교사가 없어서 난리인데...(교사 7, p.27:36-38).

... 사실은 자발적으로 하지만, 많이 꺼리십니다. 왜냐하면 선입관 자체가 장애인에게 아직 편견이 있고, 힘들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자발적으로 오기는 좀 그렇고요. 아는 집사님들이 권유를 하셔서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교사 10, p.44:40-42).

(3) 장애인 부서의 주일 프로그램 운영형태나 효과는 교회별, 담당교사별로 다양함: 교사-학생 비율, 공과 활동, 내적 고민

교회의 장애인 부서에서 실시하는 주일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서 대체적으로 각 교회별이나 담당교사별 역량이나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먼저 교사 대 장애인 비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일대일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혹은 교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사 일인당 복수의 장애인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우리가 애들을 일대일 양육을 하니까...(교사 1, p.2:9).

일대일로 대부분 하고 일대일로 가르치고 그런 식을 하고 있습니다(교사 6, p.24:35-36).

교사-학생이 일대일도 있고, 교사가 아까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일대일도 있고, 일대이도 있고, 일대 삼도 있고, 애들이 조금 가벼운 장애아가 있잖아요? 장애아라도 말을 다 알아듣고 조금 경한 아이들은 세 명, 너무 험한 아이들, 조금 심한 아이들은 일대일, 꼭 일대일은 아니고 다 다릅니다(교사 7, p.29:14-17).

아울러 주일 공과교재나 활동 내용에 있어서도 각 교회나 교사마다 장애인의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유사점이나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전략) ... 애한테 맞는 공과 책을 사용합니다. 영 글씨도 모르는 아이들한테는 그림위주로 설명해 주고, 또 글씨를 아는 아이들은 글도 읽어가면서 암송도 시키고... 그 아이의 유형에 따라서 분반공부를 하는데, 정 안되는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기라도 하고...(교사 1, p. 2:10-12).

읽을 수 있는 학생과 읽지 못하는 학생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중략) ... 읽을 수 없는 아이들은 거기에 맞게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림을 많이 그린다든지... 지금은 동일한 교재를 하고 있죠(교사2, p.5:20-25).

지금 같은 경우는 첫째, 셋째 주 같은 경우에는 공과공부를 하고 둘째, 넷째 주는 레크레이션, 선생님이 따로 있고, 넷째 주는 신체활동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스트레칭이나 항상 활동적인 것... 신체활동을 제가 시켰죠. 분반공부를 할 때는 따로 교재가 있습니다. 유치원정도 수준의 교재를 제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아를 위한 교재는 아니고 일반아이를 위한 것인데 수준을 좀 낮추어서 가르치죠(교사 3, p.9:1-3).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성경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는 매주 좀 다른데요... (중략) ... 첫 주 체육활동, 둘째 주 음악활동, 셋째 주는 성경암송, 넷째 주는 생일파티, 다섯째 주는 요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반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2부 순서는 담당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교사 4, p.142-6).

이러한 장애인부서의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회마다 혹은 담당교사에 따라서 공통점과 다른 점들이 있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 등 전문성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내적 고민과 갈등들도 피력하고 있었다.

어려운 점은 만약에 다른 b라는 학생의 담당교사가 안 나왔을 때는 합반을 하잖아요? 그럼 장애 수준이 다를 때, 나는 A라는 아이를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그 아이는 뜨는 거죠. 그 아이들은 책들도 다르거든요. 장애에 따라서...(교사 1, p.2:15-17).

공부시키면서 어려움은... 교사교육을 확실하게 좀 해주실 분도 있어야할 것 같아요... (중략) ... 우리가 한 아이를 데리고 같이 고민하고 해서, 아, 이것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니까 좋은데, 정말 어쩌냐하면, 각개전투처럼 각자 맡은 아이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중략) ... 어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오로지 담임선생님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저는 아이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 그냥 읽고 이야기하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아이는 읽을 수는 있거든요. '잘되고 있는 건가?'하고 고민들은 좀하고 있습니다(교사 2, p.5:2-10; 16-18).

생활연령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이 정도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략) ... 교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아무래도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까, 와서 해도 되지 이런... 사실 즉석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도 준비하는 것이 없이 해도 될 만한 수준이어서... (중략) ... 각자 담당 선생님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개별화를 하시는 거죠. 각자 스타일대로 개별화... 이런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도 이제 교육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보지만, 각자 선생님들이 섬기겠다는 생각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교사 5, p.17:43-44, p.18:1, p.19:19-21, 32-36).

또한 장애인 부서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나타나는 효과나 결과에 있어서도 응답자마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알아듣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손 모으고 엎드립니다. 눈감고... 기도가 끝나면 아멘하고...(교사 3, p.11:19-21).

변화가 있습니다... (중략) ... 말로 하는 것이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가끔씩 이제 아멘을 따라한다든지,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예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이라고 한다든지, 예배 때는 앉아 있는 다든지...(교사 4, p.14:7-10).

변화를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것은 개별적인 것 같아요... (중략) ... 그것을 눈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것이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교사 8, p.35:10-13).

아무튼 어려운 점은 심정적인 어려움은 아이들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교사 9, 40:14).

(4) 체계적인 교사교육을 통한 담당교사들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 다양한 문제행동, 간헐적 교사교육, 교사의 다양한 상황

교회의 장애인부서에 소속된 장애인들의 문제행동은 빈번하고 다양하며, 현장 교사들의 역할 수행에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며, 교회 내 통합교육(예배, 공과공부 및 행사 등)에 있어서 걸림돌에 속한다 할 것이다.

제가 맡은 아이는 자폐성향이 있는 아이인데... 막 소리 지르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깨물고 하는데...(교사1, p.2:29-30).

당치가 큰 아이들, 특히 여선생님들 경우에는 케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뇌병변이 심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해코지를 하고, 심지어 심한 아이는 옆의 머리 긴 선생님들의 머리 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장애아, 사랑부 아이들 케어하기가 많이 힘들죠(교사3, p.8:8-11).

문제행동이 있죠.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막 고함을 치면서 흥분을 한다고 해야겠죠?... 갑자기 제어가 안 되고, 갑자기 일어나서 고함을 치면서 막 돌아다니고, 꺾꺾거리고 드러눕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교사 7, p.30:1-4).

또한 장애인부서 담당교사들은 운영과정 가운데서 교사교육이나 연수교육 등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교육을 너무 너무 느끼죠. 그래서 저희는 교육을 좀 받는 편입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받는 것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있더라고요...(중략) 그것이 일 년에 한 번도 하고 어떤 해는 두 번도 가고 정해지지는 안 했어요. 어떤 해는 그냥 지나칠 때도 있고.. (중략)저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교사 7, p.28:13-25).

너무 많이 느끼죠. 아마 일 년에 한 차례 정도는 부·울·경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장애인부서 전체 세미나가 000교회에서 있었고... 000교회에서도 있었고... (중략) ... 일 년에 한번 정도 밖에 안 돼요. 우리는 무대 뽀로 하잖아요? 어떨 때는 제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고, 원칙도 없이 그냥 안아 줄 수만은 없는데, 그때 조금 노하우를 가르쳐주니까... 직접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죠(교사 8, p.34:28-37).

문제는 우리 사랑부 교사도 사역을 한다는 마음으로 오기는 하지만, 분명히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지식이 없이 그냥 사역하는 마음만 가지고 왔을 때는 여러 가지 돌발행동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교사 10, p.45:8-10).

그럼에도 교사교육은 각 교회나 교사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관련 교육이나 연수는 교회 내·외부에서 매우 간헐적으로만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고 있어요. 외부로 나가서 배우고 오고... 그러더라고요(교사 1, p.2:20).

저희 사랑부에서는 특별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강사가 오셔서 하는 경우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외부에 가서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는 일반 유치부나 초등부 등 일반아이들의 선생님들은 있지만... 사랑부는 자체적으로 교사교육을 받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교사 3, p.8:12-15).

우리 교회 담당 목사님이 그 쪽으로 전공을 하셨어요. 000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 씩 교육을 하시려고 하시고,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도 교육을 했었고요...(교사 9, p.38:22-24).

사실 장애인 부서를 운영하는 현장의 담당교사들은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먼저 담당교사들의 특성(다양한 직장, 장애인부서의 봉사활동에 대한 기본 인식 등)이나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성을 갖춘 교사교육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한점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 교사 연수에 가실 수 있는 선생님은 같이 가시고 못가는 선생님들은 형편이 안 되는 선생님들은 못가고, 저는 참석을 못해요. 거기에...(교사 1, p.2:21-22).

그런데 그 교육이 너무 수박 겉핥기식 같고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라 장애등급 분류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마다 개인적인 일을 하시니까 그 시간대에 모여주세요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중략) ... 교사교육을 확실하게 좀 해주실 분도 있

어야 할 것 같아요. 특수교육을 하신 분들이 오셔서... (중략) ... 제가 몇 번을 교육을 받아도 사실은 현실적이기 보다는 이론적이라서...(교사 2, p.4:29-31; 35-36; p.5:2-5).

정말 다양한 직업에 다양한 직분자로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냥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 감사하지만은 아이들을 대할 때 보면 전공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만 대하시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중략)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교사 5, p. 17:9-13).

... 장애인 사역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잘 안 하시려고 하고... (중략) ... 다른 분들은 특별히 전문지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사 중에서도... (중략) ... 그냥 사랑부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소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교사의 수와 전문성이라 할까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밖에 오지 않는 데요... (중략) ... 그런데 뭐냐 하면, 다른 분들은 쉽게 말하면,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전문성이 없으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거든요. 우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 깔려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교사를 확충하다보니까, 수급의 어려움이 있고, 교사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만들고 책자를 주면서 사랑부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면 되는데,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이 우리 믿음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 가지고 했을 때 어딘가는 모르게 부족하다는 것을...(교사 10, p.46: 25-31, p.47:13-15; 43-46, p.48:1).

2. 장애인 부서의 통합교육(예배, 공과공부 및 각종 행사 등)에 관한 인식

이어서 교회 내에 장애인부서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담당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기초적 인식과 관련하여 심층면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하위 주제와 더불어 주요 개념 및 단어들에 도출되었다.

(1) 통합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수준은 단순성과 불명확성: 물리적 통합, 무지함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들은 통합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가 매우 다양하였는데, 우선 대부분 ‘물리적 통합’ 등 매우 단조로운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교사 1, p.2:24).

저는 그냥 구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도 그렇고...(교사 4, p.15:3).

통합교육, 그냥 함께 하는 것...(교사 5, p.20:19).

아울러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들은 통합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었다.

어떤 뭐 일반학생들을 이야기 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되지는 않잖아요? 수학이면 그런 문제들을 살면서 해결하는 한꺼번에 있는 것을 그것들을 함께 배워가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융합교육이라는 것들...(교사 2, p.6:12-15).

제가 통합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교사 10, p.48:39).

(2)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려가 더 각인됨:

모방학습, 무시, 돌발적 행동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들은 통합교육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각각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일부 기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가 그 아이들을 본다. 그러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저를 들거든요... (중략) ... 장애아들은 비장애아들과 같이 있으면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장애아들이 비장애아들 보면서 좀 행동이 안 달라질까요?(교사 1, p.2:25-29).

장애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죠? 더 많은 것을 경험 할 수도 있겠죠... (중략) ... 비장애인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바뀔만한 변화가 있었는데, 장애인을 만나면서,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교사 4, p. 15:12-20)

장애아들은 함께 있으면 배려 받는 것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같이 있으면...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이 있을 때 그런 학생들, 불편함이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들, 아이들이 그렇게 배려 받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을 받는 것... (중략) ... 비장애아동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를 뿐이라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제가 같이 수업을 해보거나 하면 아이들이 어떤 때는 대개 잔인할 때가 있어요... (중략) ... 함부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웃고 즐기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장애아들이 같이 있어서 그 아이의 행동에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교사 2, p.6:22-36).

그러나 담당교사들은 실제적으로는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보다는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

인 인식들이 더 깊이 각인되어 있는 듯하였다.

‘통합으로 교육이 되겠나’라고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이, 장애아들, 지적이든, 신체적이든, 뇌 병변이든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통합교육이 되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못 있고 애기를 하면 듣고 앉아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거의 다 소리를 지른다든지, 돌아다닌다든지 혼자 뭐 자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중략) ... 지적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3급 되는 아이들은 통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급이나 2급은 좀 힘들다고 보죠... (중략)... 아이들한테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아에게 이점은 없고 상처만 안 받아도 다행이죠. 같이했을 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무관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무관심이 많더라고요(교사 3, p.10:14-36).

... (전략) ... 너무 장애가 심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차라리 모아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한 아이들은 좀 통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극이 될 수 있고 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중략) ... 그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정상적인 아이들도 인성적인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굉장히 장애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무리죠. 정상인 아이들 옆에 있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따로 모아서 케어를...(교사 9, p.41:16-23).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들을 조금 더 이해한다는 것이죠. 통합교육을 통하여...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 모르지만... (중략) ... 결국은 비장애인들이 훨씬 많은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장애인의 협조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교사 10, p.49:10-17)

(3) 통합교육의 성공을 위하여 교회의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의 문제행동 개선이 중요: 이해, 담임목사, 문제행동

교회에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통합교육적인 예배, 공과공부 및 각종 행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하게 요청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담임교사의 생각, 마인드가 일단 먼저 가지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 끼리 통합교육을 했을 때 초등부면 초등부 그 주일학교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그 부모님들께서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중략) ...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비장애인들이...(교사 2, p.7:1-17).

일반교육부서의 선생님들한테, 아이들한테 인식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장애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라는 것을...(교사 6, p.26:39-40).

하나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넉넉해지고...(교사 8, p.36:37-38).

교회 내에서 일반성도들을 대상으로 크리스천으로서의 마음가짐이나 행동 가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교사 9, p.42:13-15).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담임목사의 관심과 사고의 전환이 교회 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통합 교육적 활동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과 과제로 꼽고 있다.

목사님의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어떤 길이 다 있으셔서 이 길로 눈을 안 돌리시려고 하죠... (중략) ... 신학교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교과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없어요. 장애인에 대한 언급조차 신학교에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마땅히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나 하면 단어조차도 5, 60년대 쓰던 곱추라든지, 하여튼 그것을 설교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에서 그런 것을 안 가르치거든요(교사 4, p.16:34-45).

모든 담당부서의 사역자가 다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인식 개선이 우선... 목사님의 인식개선이 되면 자연적으로 평신도들의 인식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내에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관심사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목사님은 진도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쪽으로는 많이 들었지만은 장애인 쪽에서는 들어본 적이 제가 없어서...(교사 5, p.21:17-22).

담임목사님이 모든 장애인 부서 운영과 통합의 주요 키를 쥐고 있고요. 담임목사님이 그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비중을 두고 마음을 두고 품고 있느냐, 담임목사님이 그림으로써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지원하면서 힘을 실어주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교사 7, p.32:42-44; 8:1).

아울러 교회 내에서 통합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자세와 역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수정과 개선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어려움은 있죠. 우리 장애아들이 사리분간을 못하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예배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단지, 친구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로 하잖아요?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절체가 안 되니까... 좀 다른 부서에서 양해를 해준다면... (중략) ... 같이 가서 통합해서 나이별로 들어가서

같이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교사 1, p. 2:38-39; 3:1-5).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거든요... 어떤 아이는 예배 중에 문이 열려 있으면 문을 광 닫고 잠그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옆에 아이를 해코지하는 아이들... 그런데 비장애아들이 같이 섞여서 한다면 ... (중략) ...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교사 3, p.10:38-41).

장애인, 비장애인이 다 섞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렇게 사실은 할 수도 없어요. 상태가 심한 아이들은 할 수도 없고 산만하고 정상인의 아이들도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따로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교사 7, p.33:27-3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B광역시와 K도에 소재한 교회 내에서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부서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을 알아보고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에 개별면담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회 내에 설치된 장애인부서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이 주로 신앙(믿음)적인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특수)교육학적인 인식은 매우 과소평가되거나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애인 부서가 설치된 장소가 일반기관이 아닌 교회인 만큼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 믿음이나 영혼구원에 있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역사에서 기독교계가 학교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깊은 상호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의 발전사를 살펴보다도 쉽게 알 수 있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과 학교의 설립과정에서 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의료와 더불어 교육 활동을 주요 매개체로 사용하였으며, 20세기 초기까지 설립된 미션학교는 광혜원, 배재학당, 언더우드 학당, 이화학당 등을 비롯하여 약 800개교에 이르렀다(손인수, 1987; 조성일·강진영, 2002). 이처럼 우리나라의 근대식 학교들은 관(官)주도 보다는 사학(私學)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사학 가운데서도 기독교계의 사학이 민간인 사학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활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손인수, 1996). 특

히 당시 설립된 미션학교의 교육적 성격과 특징으로는, 기독교적 민주주의 교육과 인재양성, 자주정신의 한국인 양성, 평등사상을 기반으로 한 자주적 교육활동, 근대식 교육과정의 구성, 학기와 시간배정 등 근대 학제의 성립에 기여, 직업의 귀천 타파 및 근로정신의 배양 등 단순히 기독교 사상의 보급이나 선교를 넘어 교육을 비롯하여 사회윤리, 정치, 문화, 경제 등에서 민족정신을 일깨움으로서 세상과는 질 다른 시대정신을 주도하고자 하였다(박원희 외, 2009).

또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경우에도 서양식 특수교육의 효시는 1894년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이며 의사였던 홀(R. S. Hall)여사의 시각장애인 소녀에 대한 점자교육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해방을 전후하여 평양 광명맹아학교, 대구 맹아학교 등 수 많은 우리나라 사립 특수학교가 기독교적 인도주의와 박애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권요한 외, 2015; 김기홍, 2014).

그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참여한 담당교사들의 교회 장애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다음세대’, ‘주일학교’, ‘교회학교’ 혹은 ‘교육부서’ 등의 상급기관에 속하여 사실은 ‘믿음(신앙)’과 ‘교육’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믿음이지만, 이 과정 가운데서는 교육이라는 도구 혹은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교육은 결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교회학교 혹은 주일학교 등의 교육기관은 예배, 기도, 찬양, 믿음, 구원, 말씀 등의 신앙(학)적인 방향과 목적 및 대원칙을 바탕으로 한 후에 아동발달심리, 교육과정, 문제행동수정, 교수법, 상담, 교직, 교육관, 치료, 교육행정, 평가 등에 있어서는 반 기독교적이거나 비기독교적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교육학의 이론과 실재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이다. 즉 신학과 교육학의 상호 보완과 협력을 통하여 주일학교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의 적용과 실천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바이다.

둘째, 교회 장애인 부서의 담당교사들이 가질 자질에 있어서 소위 인간적 자질(믿음, 인성, 사랑, 이해, 품성, 배려 등)과 전문적 자질(지식, 정보, 기능 등)의 함양을 위한 교사교육이나 연수교육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요섭, 2007; 양태수, 2006; 최석주, 2008; 이회능, 2004).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교육학에서의 전통적인 격언은 전적으로 자율적이고 봉사차원이며,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어도 가능한 교회교육에서의 담당교사에게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정영근 외, 2002; 임창재, 1999). 특히 인지, 정서, 신체운동, 감각, 의사소통, 사회성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과 능력의 제한성을 가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담당교사들의 소명감과 더불어 전문성은 장애인 자신과 장애인부서 운영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질적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심층 면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율성, 봉사성 등을 기초로 한 장애인 부서 교사의 모집에서부터 간헐적이고 비체계적인 교사교육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교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교사에 대한 다양한 연수교육을 통하여 교육학을 비롯하여 특수교육학 및 통합교육 등에 대한 기초적이며 포괄적인 지식과 정보 및 기능을 함양하여 최소한 교사, 교재, 교육과정, 교수법, 행동수정 등의 영역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일정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이은주, 2002).

셋째, 교회에서 장애인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통합적인 환경에서의 예배, 공과 활동 혹은 교회 행사에 참여하여 차별 없이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담임목사의 인식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김종복, 2005; 황홍렬, 2008; 최대열, 2009; 김영기, 2011). 김요섭(2007)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들은 통합교육보다는 오히려 분리교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대상자들은 통합교육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는 아니었다. 이는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들이 장애인들의 문제 행동을 통합교육의 걸림돌로 보는 시각과 더불어 교회 내에서 현실적으로 여전히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거부, 회피 등 부정적인 인식에 오히려 더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일반학교 교육에서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정착시키는 일은 특별히 교육행정을 주도하는 기관장이며 관리이자 행정가인 교장의 긍정적인 태도나 책임의식이 반드시 요구된다(박승희, 2004; 이소현·박은혜, 2006; 한국통합교육학회, 2009).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의 담임목사의 역할과 기능은 일선학교의 학교장과 유사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신총회(<http://cafe.daum.net>)의 헌법 제41조(목사의 직무)에 따르면, 목사의 직무는 총 8가지로 정하고 있다. 즉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찬송을 지도하는 일, 성례를 거행하는 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교인을 교육하는 일, 교인을 심방하는 일 및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등이다. 이에 교회 내에서 장애인부서의 올바른 운영이나 더 나아가서 통합 교육적 환경과 인식을 조성하는 일에 있어서 담임목사의 권한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담임목회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또는 특수교육학적인 인식을 준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목회자 양성 대학에서부터 특수교육관련 교과목 개설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금섭·배내운·이민호(2005)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특수교육관련 교과목이 설치된 경우를 보면, 신학과가 설치된 35개교 대학 가운데서 2개교(약 5.7%), 기독교교육과가 설치된 12개교 대학 가운데 2개교(약 16.7%) 그리고 32개 신학대학원 가운데 2개교(약 6.3%)로 나타나 목회자의 양성과정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실제적이고 기초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정보의 결핍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교육대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 특수교육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또한 교육과학기술부(2009)에 의하면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모든 유아, 초등 및 중등예비교사들은 2학점 이상의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이 필수 교직소양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담임목사의 인식개선’이라는 두 가지 핵심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하여 교회의 장애인 부서의 담당교사들은 대부분 다양한 직업인으로서 주로 믿음, 사랑, 헌신의 정신으로 ‘자원(自願)’이나 ‘권유’를 통하여 해당 부서에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부서 담당교사의 자질을 살펴볼 때, 교사의 인간적 자질은 말할 나위도 없이 매우 우수하지만, 교육적 혹은 특수교육적인 인식 면에서 전문성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된다. 즉 장애인부서의 운영 과정에서 대체로 믿음, 기도, 예배 등 신앙(학)적인 면은 강조가 되는 반면에 이를 성취하기 위한 한 도구이자 수단에 해당하는 (특수)교육(학)적인 사고나 분석, 계획, 평가 등에 대한 교회 내·외적인 지원이나 기회 등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결국 장애인부서가 계획성, 조직성, 체계성 등 전문성이 매우 결여된 부서로 여전히 잔류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담임목사의 관심, 지원 및 참여 등의 인식은 결국 장애인부서의 흥망성

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의 통합교육적인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선결 요인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특히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기독교와 교회는 성공주의, 물질주의, 형식주의, 대형화 등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벗어나고 바른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여 점점 혼란해져 가는 오늘날 시대정신을 바로잡는 세상의 빛과 소금 및 진리의 등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동일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본 연구는 교회의 장애인부서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심층면담의 질적 연구를 통하여 실증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시함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수와 지역적인 제한성이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참여 교사들 수와 더불어 지역적 확대와 양적 연구도 병행하여 시도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권요한 · 김수진 · 김요섭 · 박중휘 · 이상훈 · 이순복 · 정은희 · 정진자 · 정희섭 (2015). **특수교육학개론**. 2판. 서울: 학지사.
- [Kown, Y. H., Kim, S. J., Kim, Y. S., Park, J. H., Lee, S. H., Lee, S. B., Cheong, E. H., Cheong, J. J., Cheong, H. S. (2015).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2, Edition. Seoul: Hakjisa.]
-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2009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Practical Handbook*.]
- 교육부 (2016). **2016 특수교육통계**. 서울: 에프앤(주).
- [Ministry of Education (2016). *2016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Seoul: FN(Corporation).]
- 김기홍 (2014). **장애아교육학**. 개정판. 서울: 집문당.
- [Kim, K. H. (2014). *Disabilities Children Education*. Seoul: Jipmondang.]
- 김문수 (2009).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교회 장애인 복지 활성화 방안 연구. **인권 복지연구**, 7, 39-41.
- [Kim, M. S. (2009). *A Study on the Promotion of Welfare for the Disabled People of the Church for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Journal of Human Rights Welfare, 7, 39-41.]
- 김영기 (2011). **한국 개신교 사회복지활동 활성화에 미치는 요인연구-부산광역시 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Kim, Y. K. (2011).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Activation of Social Welfare Activities in Korean Protestant Churches -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Masters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김요섭 (2007). 교회장애인 부서교사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기독교교육정보**, 16, 157-180.
- [Kim, Y. S. (2007). A survey of the consciousness of teachers of disability department of church.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16, 157-180.]
- 김윤옥 · 박성미 · 박소영 · 손 미 · 신경숙 · 이은화 · 정명화 · 허승희 · 황희숙 (2009). **질적연구실천방법**. 경기도 파주: 교육과학사.
- [Kim, Y. O., Park, S. M., Park, S. Y., Son, M., Shin, K. S., Lee, E. H., Cheong, M. H., Huh, S. H., Hwang, H. S. (2009). *Qualitative study practice methode*.

Keoyunggido Paju: Gyoyuggwahagsa.]

김은경 (2007). 장애인 통합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 교회학교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교회**, 356권, 24-30.

[Kim, E. K. (2007).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for the Inclusion of Disabled Persons. Focusing on Inclusion School Education in Church Schools. *Educational Church*, 356, 24-30.]

김종복 (2005). **현대사회의 장애인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역할**.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05대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05 추진본부.

[Kim, J. B. (2005). *The reality of disabled people in modern society and the role of Korean church*.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05,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05 Promotion Headquarters.]

박승희 (2004). **한국 장애학생 통합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Park, S. H. (2004).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Korea*. Seoul: Gyoyuggwahagsa.]

박원희 · 김기창 · 김영일 · 김영옥 · 이은주 · 신현기 · 한경근 · 이숙정 · 김애화 · 윤미선 · 김은경 · 송병호 · 이병인 · 김송석 · 양경희 (2009). **특수교육학**. 경기도 파주: 교육과학사.

[Park, W. H., Kim, K. C., Kim, Y. I., Kim, Y. W., Lee, E. J., Shin, H. K., Han, K. G., Lee, S. J., Kim, A. H., Yoon, M. S., Kim, E. K., Song, B. H., Lee, B. I., Kim, S. S., Yang, K. H. (2009). *Special Education*. Keoyunggido Paju: Gyoyuggwahagsa.]

박혜전 · 김정임 · 조영길 (2011). 한국 교회의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장애인 편의시설 포함)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7(1), 97-126.

[Park, H. J., Kim, J. I., Cho, Y. G. (2011). A Study on the Disability Recognition and Disability Acceptance of Korean Churches. *faith & scholarship*, 17(1), 97-126.]

박혜전 · 조영길 (2009). 장애인 재활과 기독교적 소명. **신앙과 학문**, 14(3), 135-175.

[Park, H. J., Cho, Y. G. (2009). Rehabilitation and Christian Call for the Disabled. *faith & scholarship*, 14(3), 135-175.]

손인수 (1987). **한국교육사**. 서울: 문음사.

[Son, I. S. (1987). *Korean Educational History*. Seoul: Muneumsa.]

손인수 (1996). **교육사 · 교육철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문음사.

[Son, I. S. (1996).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al History and Philosophy*. Seoul: Muneumsa.]

- 양태수 (2006). **21세기 감리교 장애인 선교방향 모색**. 실천신학 석사논문. 감리교 신학대학교.
- [Yang, T. S. (2006). *Seeking the direction of missions for 21st Century Methodists*. Master's Thesis. Practical Theology at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 오세철 (1987). 성서(聖書)에 나타난 장애자관(障碍者觀).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9, 1-23.
- [Oh, S. C. (1987). Perspectives of the disabled person in the Bible.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9, 1-23.]
- 이계윤 (2002).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밀알선교단 출판부.
- [Lee, G. Y. (2002). *Theory and Practice of Rehabilitation Welfare Practice*. Seoul: Milal Mission Press.]
- 이금섭 · 배내운 · 이민호 (2005). 목회자 양성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297-313.
- [Lee, G. S., Bae, R. Y., Lee, M. H. (2005). Survey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Education Related Subjects in Pastoral College.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und Practice*, 6(4), 297-313.]
- 이소현 · 박은혜 (2006).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 [Lee, S. H., Park, E. H. (2006). *Special Child Education*. Seoul: Hakjisa.]
- 이용숙 · 김영천 (2005).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Lee, Y. S., Kim, Y. C. (2005).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oul: Gyoyuggwahagsa.]
- 이은미 (2010). 장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장애인 선교 실천방안 연구. **선교신학**, 25, 337-371.
- [Lee, E. M. (2010). A Study on the Practice of Mission of the Korean Churches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Disability Paradigm. *Theology of Mission*, 25, 337-371.]
- 이은미 (2013).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연구, **신학과 선교**, 42, 215-246.
- [Lee, E. M. (2013). A Study o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Christian Approach to the Disabled. *Theology und Mission*, 42, 215-246.]
- 이은주 (2002). 통합교육 현장 비디오 시청활동이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36(4), 213-237.
- [Lee, E. J. (2002). The Effect of the Integrated Video-on-Demand Video Watching

- on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Integrated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6(4), 213-237.]
- 이희능 (2004).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에 관한 기독교적 접근. **기독교교육정보**, 9, 113-151.
- [Lee, H. N. (2004). Christian approach to integrated education for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9, 113-151.]
- 이희철 (2009). 장애인 선교의 단계별 사역방안. **월간고신** 4월호.
- [Lee, H. C. (2009). Step-by-step ministry plan for the disabled person mission. *Monthly Koshin*, 4th. Monthly.]
- 임창재 (1999). **교육학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 [Lim, C. J. (1999). *Understanding Pedagogy*. Seoul: Hyeongseol Press.]
- 조성일 · 강진영 (2002). **교육학개론**. 서울: 문음사.
- [Cho, S. I., Kang, J. Y. (2002). *Introduction to Education*. Seoul: Muneumsa.]
- 정영근 · 정혜영 · 김미환 · 최종인 · 박용석 · 정기섭 (2002). **교육학개론**. 서울: 문음사.
- [Cheong, Y. G., Cheong H. Y., Kim, M. H., Choi J. I., Park, Y. S., Cheong, K. S. (2002). *Introduction to Education*. Seoul: Muneumsa.]
- 최대열 (2009). **선교신학적 접근에서 본 장애인: 장애인선교신학의 정립을 위하여.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서울: 도서출판 세계밀알.
- [Choi, D. Y. (2009). *Mission Theological view of the disabled person*. Seoul: Sege Milal Press.]
- 최석주 (2008). **지역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연구**. 재활 복지대학원 석사논문. 나사렛대학교.
- [Choi, S. J. (2008). *A Study on the Direction to Advance the Development of Welfare Mission in the Local Church*. Masters Dissertation. Nazaret University, Seoul, Korea.]
- 통계청 (2016).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표본 집계결과. 인구 · 가구 · 주택 기본 특성항목**. 조사 관리국 인구총조사과 보도자료.
- [Statistical Office Korea (2016). *Sample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of 2015. Population · Household · Housing Basic Characteristics*. Census Bureau Population Census Division Press Release.]
- 한국통합교육학회 (2009). **통합교육**. 2판. 서울: 학지사.
- [Korea Inclusion Education Society (2009). *Inclusive Education*. 2. Edition. Seoul:

Hakji-sa.]

한남희 (2001). **장애인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Han, N. H. (2001). *A Study on the Role of the Korean Church in the Mission of the Disabled*. Masters Dissertation. 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황홍렬 (2008). 장애인선교신학 정립을 위한 한 시도. **부산장신논총**, 8, 부산장신대학교출판부.

[Hwang, H. Y. (2008). An attempt to establish the theology of the disabled perso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8,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Press.]

Greving, H. & Ondracek, P. (2005). *Handbuch Heilpaedagogik*. Troisdorf: Bildungsverlag EINS.

[Greving, H. & Ondracek, P. (2005). *Handbook of Therapeutic Pedagogy*. Troisdorf: Bildungsverlag EINS.]

Hensle, U. & Vernooij, M. A. (2000). *Einfuehrung in die Arbeit mit behinderten Menschen 1*. 6. Aufl. Wiebelsheim: Quelle und Meyer.

[Hensle, U. & Vernooij, M. A. (2000). *Introduction to working with disabled people 1*. 6. Edition. Wiebelsheim: Quelle und Meyer]

Mosen, G., Lohs, A., Hagemaiier, R., Knapp, R., Sackarendt, B. (2001). *Bildstoerung! Der lange Weg vom Tollhaus zur Werkstatt fuer Behinderte*. Eine Ausstellung ueber die Geschichte des Umgangs mit behinderten Menschen. Frankfurt a. M., Bundesarbeitsgemeinschaft Werkstaetten fuer Behinderte e. V.

[Mosen, G., Lohs, A., Hagemaiier, R., Knapp, R., Sackarendt, B. (2001). *Imagedisorder! The long way from the Tollhaus to the workshop for the disabled*. An exhibition about the history of dealing with disabled people. Frankfurt a. M., Federallaborcommunity Work-shops for disabled organization].

Moser, V. (1995). *Die Ordnung des Schicksals*. Zur ideengeschichtlichen Tradition der Sonderpaedagogik, Butzbach-Griedel: AFRA-Verlag.

[Moser, V. (1995). *The Order of Destiny*. On the tradition of special pedagogy. Butzbach-Griedel: AFRA-Press.]

Speck, O. (2003). *System Heilpaedagogik*. Eine oekologische reflexive Grundlegung, 5. Aufl., Muenchen & Basel: Reinhardt.

[Speck, O. (2003). *System of therapeutic education*. An ecological reflexive foundation. 5. Edition. Muenchen & Basel: Reinhardt.]

고신총회헌법. <http://cafe.daum.net>(2017.7.10).

[Constit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Retrieved from <http://cafe.daum.net>(2017.7.10.)]

교회복음신문 2017. 1. 21일자 12면. “신년대담.”

[“New Year talk”, Gyohoebogeumsinmun(2017.1.21.) page 12.]

크리스찬연합신문. <http://cupnews.kr>(2017.3.16).

[Christianyunhapsinmun. Retrieved from <http://cupnews.kr>(2017.3.16.)]

논문초록

교회 내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 교사들의 인식

김기홍 (부산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교회의 장애인부서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부서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B광역시와 K도에 소재하고 장애인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6개 교회의 총 10명의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개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내용은 장애인 부서 운영의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인식 등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회의 장애인 부서 운영 실태에 관한 인식에서, 첫째, 담당교사들은 장애인부서의 존재의미로는 장애인의 믿음생활에 핵심가치를 두고 있었다. 둘째,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 수급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로 인하여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장애인 부서의 주일 프로그램은 교회별, 담당교사별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있었다. 넷째, 체계적인 교사교육(연수)을 통한 담당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는 시급하지만 담당교사의 개인적인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어서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첫째, 통합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수준은 단순하거나 불분명하였다. 둘째,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교육현장의 현실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각인되어 있었다. 셋째, 통합교육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선결과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문제행동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통합교육, 교회학교, 장애학생 부서, 담당교사

